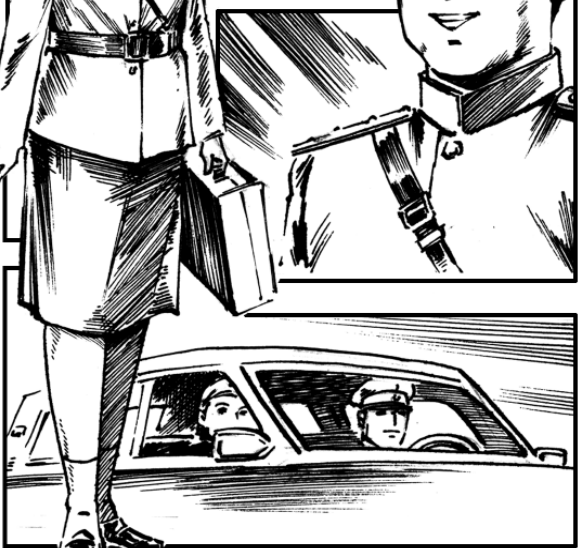
도내무일군강습소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송포강철공장에 배치된 처녀내무원 리정금.
이 단발머리처녀내무원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많이 배웠습니다. 불과 불의 대결은 멎은듯 하나 원쑤들의 총포성없는 비밀전쟁은 계속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보위전사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정금동무!
탁현기
대위동지.
어서 타오.
공장에 가야지.
결국은 오빠가 섰던 초소에 누이동생이 섰구만.

저… 여기서부터 걸어 들어가고싶습니다.

여기서 자라난 정금동무에게야 이 공장이 구면이지.

정작 오빠의 피가 스민 초소에 서고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빵 빵

아니, 저…
동지!

날보고
그럽니까?

지난 겨울에 도내무일군강습소앞에
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원해준…

제가요?
예.
허- 난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일을 한적이 없는데요.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분명 그 동무같은데…
저 말썽군운전사를 아오?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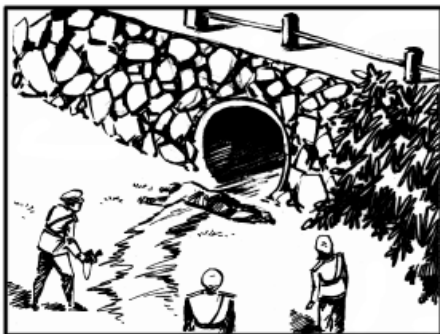
제가 아는 사람과 삭갈린것
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날
정금동무, 대청강동뚝
배수구로 빨리!

안식박사요.

놈들이 박사를 유인하여 살해하고 도망친것이 분명하오. 범행시간은 어제밤 12시부터 새벽 1시경으로 추측되오.

아직 우리 사람들도 잘 모르는 새 특수강발명문제를 어떻게 냄새맡고 박사를 살해했을가요?

이건 원쑤가 우리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다는것을 말해주오.

정금동무, 상급에서 며칠전에 잡은 암호무전내용을 알려 왔소. 자, 보오.
《백호》,
요구한 꽃씨 보
냄. 특산물수확
을 앞당길것.
K2
이건 새 특수강을 노린 《백호》라는 간첩망이 이미 우리 내부에 기여들었다는 걸 의미하오.

그리구 《꽃씨》는 첩자인지 어떤 정탐기재인지 아직은 알수 없소.
《특산물수확》, 여기엔 분명 무서운 음모가 숨어있소.
안식박사의 죽음이 바로 《백호》의 서막인것 같습니다.
우리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활한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새 특수강을 보호해야 하오.

사무실
반년전 제가 대학시절부터 착상한 특수강연구기초자료를 박사선생님께 보여드리게 되였습니다.

며칠후 저의 연구자료들과 함께 두툼한 책들을 안고 찾아오신 선생님은…
이건 내가 연구하던건데 동무가 착상한것과 같은것이야. 이걸 참고하면 연구에 도움이 될거네.
라고 하며 그 책들을 저에게 모두 안겨주는것이였습니다.

제가 야금계의 관록있는 선생님의 조수가 되여 선생님을 돕고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지만 한사코 연구자료를 놓고 가셨습니다.
자신의 한생이 깡그리 적힌 그 자료들을 말입니다.
박사선생님이 문을 나서며 《내가 자네의 조수가 되여주지. 그래야 금속과학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할수 있어.》하며 너그럽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박사선생님이 잘못된 그날 2차시험에서 성공하여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 퇴근하셨습니다.
박사선생님이 평소에 누구와 가까웠습니까?
창고장아바이와 무척 가까이 지냈습니다.
함께 독초를 나눠피우며 담배친구가 되고 올봄부터는 선생님이 낚시질과 장기에 취미를 붙였는데 여기서도 아바이가 제노라했으니 자연히 가까와졌지요.
창고장?!

아이, 내무원동지,
안녕하세요?

도서실

영옥동무, 수고해요.

그날저녁 선생님은 창고장 아바이와 함께 송포식당 에 갔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날 저는 도서실사때문에 퍽 늦어 퇴근하는데 창고장아바이와 박사선생님이 함께 오시더군요.
갈림길에서 헤여진 창고장은 그만 열쇠를 창고에 두고왔다고 하며 다시 돌아섰습니다.
창고장은 그날밤 합숙에서 주무신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며칠후

자, 성민이! 유리를 실으러 떠나자구.

뭘 꾸물
거려? 자,
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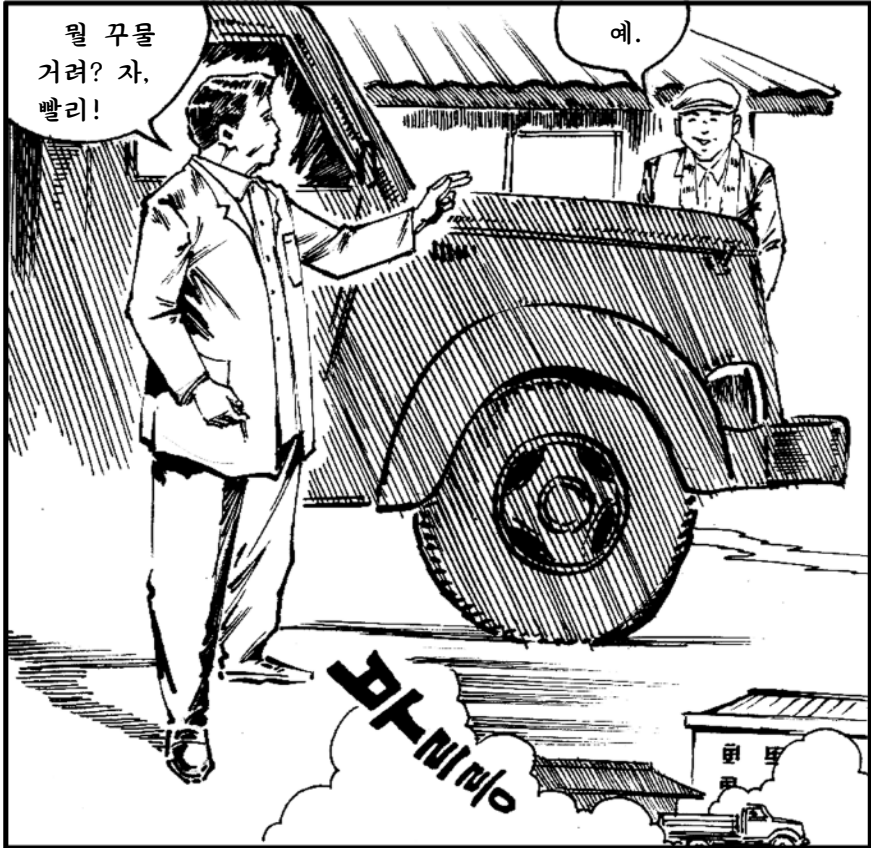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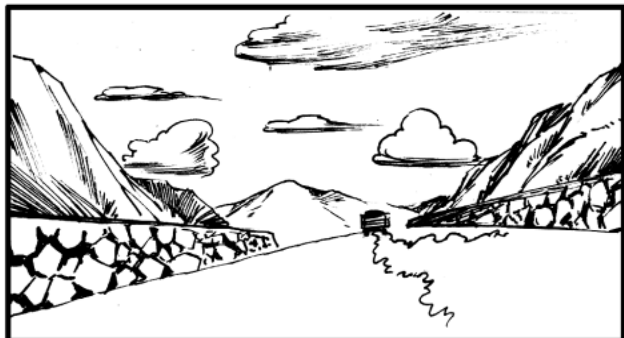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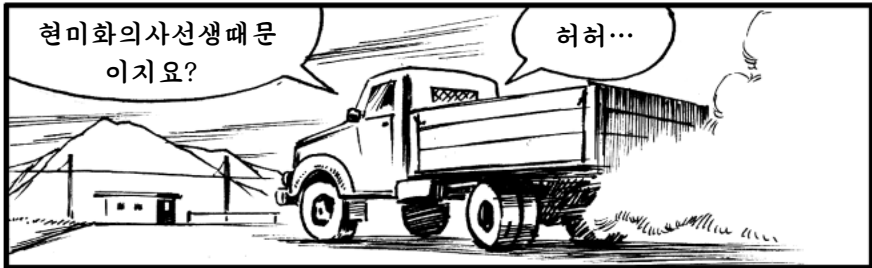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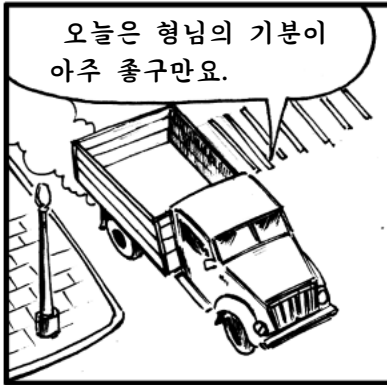
예.

오늘은 형님의 기분이 아주 좋구만요.

내가 알아맞춰볼가요?

현미화의사선생때문 이지요?
허허…

자네 술밖에 모르는가 했더니 눈치도 빠르군.

하하하

그날밤
저벅
저벅

뭐? 멀리 다른데 가서 공장직맹에 그런 편지를 쓰라구?

이건 또 어디에 쓸 전주곡이야?

한 편
산나물이 정말 많구나.

악!
푸드득

깜짝 놀랐군. 가만, 여기가 어디야?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박쥐굴이구나. 어이구, 무서워.
휘익
쏴

사람살려요!

세워주세요.
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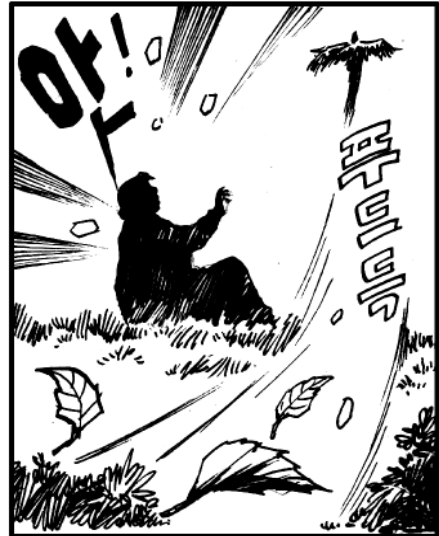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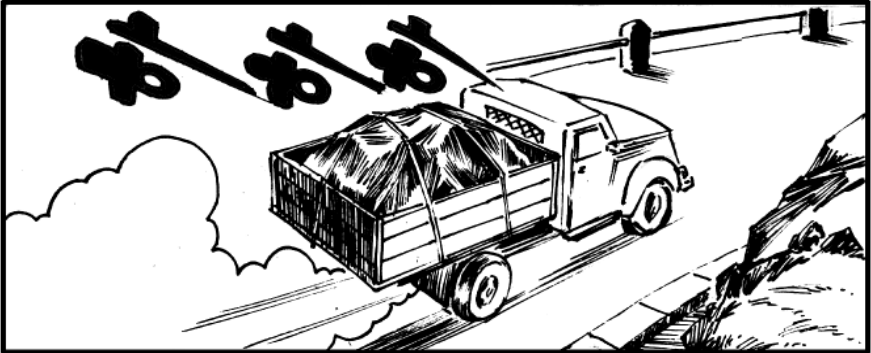
이건 뭐야?

아니?!
자재부원 이군요.

누가 죽고싶어 안달인가 했더니 합숙책임자아주머니군요. 어떻게 된 일이요?
산나물을 뜯느라 정신이 없다나니 글쎄 사람들이 무섭다는 바…박쥐굴 앞에까지 갔댔수다. 너무 무서워…

박사선생이 잘못된 다음부턴 대낮에두 꽤 무섭수다.

요새 놈들이 간첩놈들을 계속 들이민다는데 조심해야 하우다.

그 악귀같은 미국놈들과 괴뢰놈들을 몽땅 쳐없애야 해요.

깊은밤
박사살해로 너는 항상 감시
속에 있다. 지령없는 행동을
일체 엄금하며 명령불복자는
즉시 처형할것이다.
지구망총책 《백호》
《백호》? 네가 이《청룡》을 점점 더 무시하려드누나. 흥!
내가 바로 이 공장주야!
내 이번 거사에 선손을 쓰고…
망책자리를 빼앗아낼테다.

부스럭

휘 휘 호…

꾸 욱 꾸 욱

형님.
야, 꼬리가 달리지 않았어?

형님은 겁두 많수다.
자식, 잃어버린 공장과 재산을 찾는게 헐한 일 같아? 어물거리다간 거사는 고사하구 《특수강작전》에서두 밀릴수 있단 말이다.

밀리다니? 그럼 그걸 노리는 놈이 또 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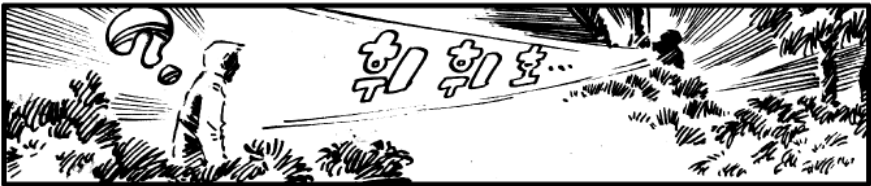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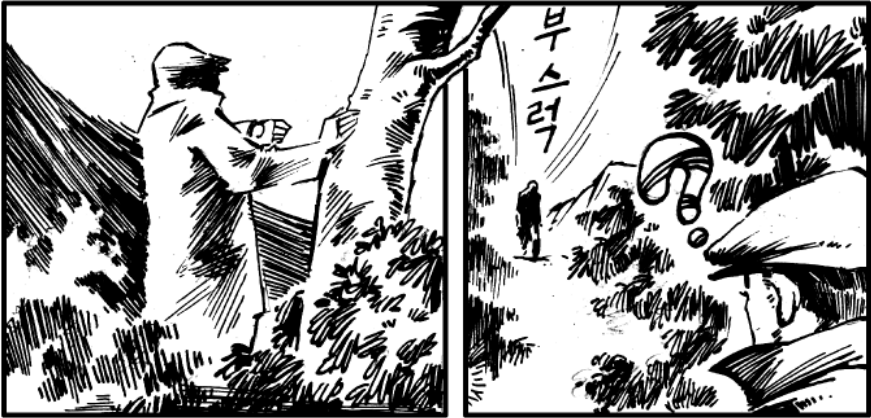
선손을 써야 이 《청룡》의 몸값이 《백호》망에 더 뚜렷이 남게 되는거야.

자, 새 지령이다. 실수가 없도록 하라.

공 장
알 림
7월 27일을 계기로
이야기모임 진행.
«승리자들은 말한다»

계기로
진행.

직맹부위원장

똑
똑

영식동무, 전쟁때 약대봉계선에서 적 땅크 두대를 까부시고 중상을 당했다가 한 간호장으로부터 수혈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소?
그걸 부위원장동지가 어떻게…
옳구만. 자, 받소.
평양기계공장 최일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허허… 편지를 읽어보오. 공장직맹앞으로 왔는데 함께 싸운 전우라오.

됐소. 위훈을 세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겸손하다니까. 내 동무를 부른 또 다른 리유는 이번 7월 27일 이야기모임때 동무가 적 땅크를 까부시던 이야기랑 그 간호장이야기랑 하면 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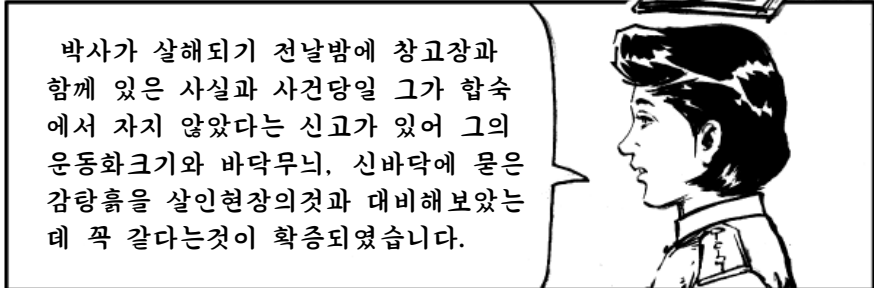
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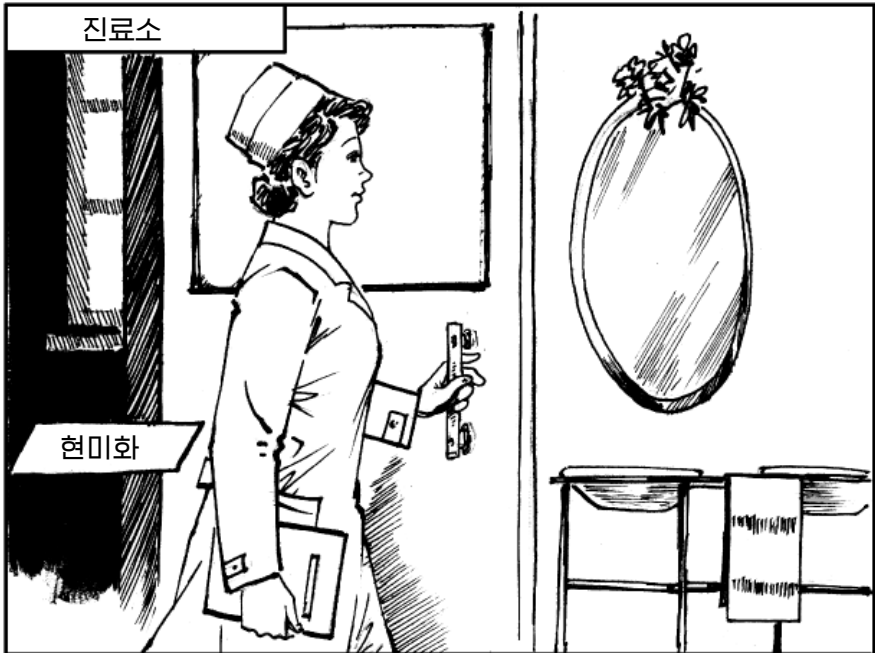
아니, 전 그런 모임에 나설줄 모릅니다.
허! 전쟁참가자이며 대학졸업생이 그런 말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소? 다른 말 말고 준비를 잘하오.
?
오빠!

오빠, 이야기모임에 참가한다지요?

영옥아, 너야 날 알지 않니? 난 말주변이 없어서…

기사동지, 걱정 마세요. 공장웅변가인 이 동생이 적극 도와주겠어요.

박사가 살해되기 전날밤에 창고장과
함께 있은 사실과 사건당일 그가 합숙
에서 자지 않았다는 신고가 있어 그의
운동화크기와 바닥무늬, 신바닥에 묻은
감탕흙을 살인현장의것과 대비해보았는
데 꼭 같다는것이 확증되였습니다.

난 의견을 달리하오.
창고장은 그날밤 합숙호 실열쇠를 가지려 공장에 나갔다가 경비원들의 휴계실에서 장기를 두었소.
그러다가 해뜰무렵에 헌로동화를 신고 낚시질하려 강으로 나갔다고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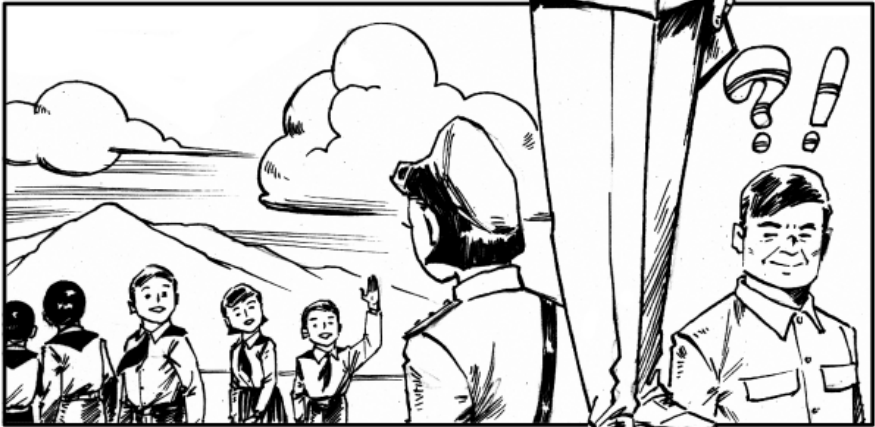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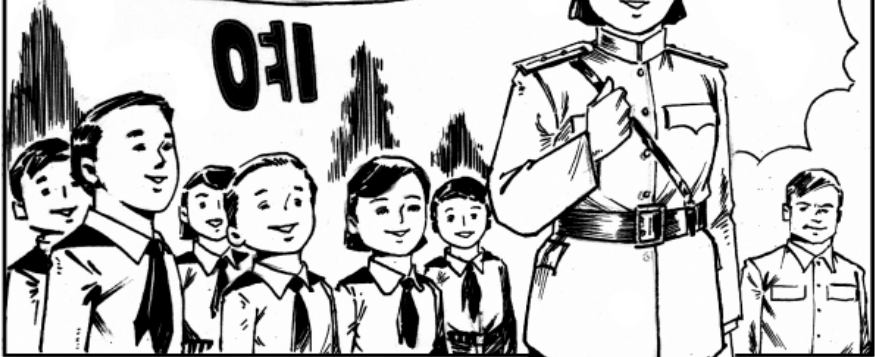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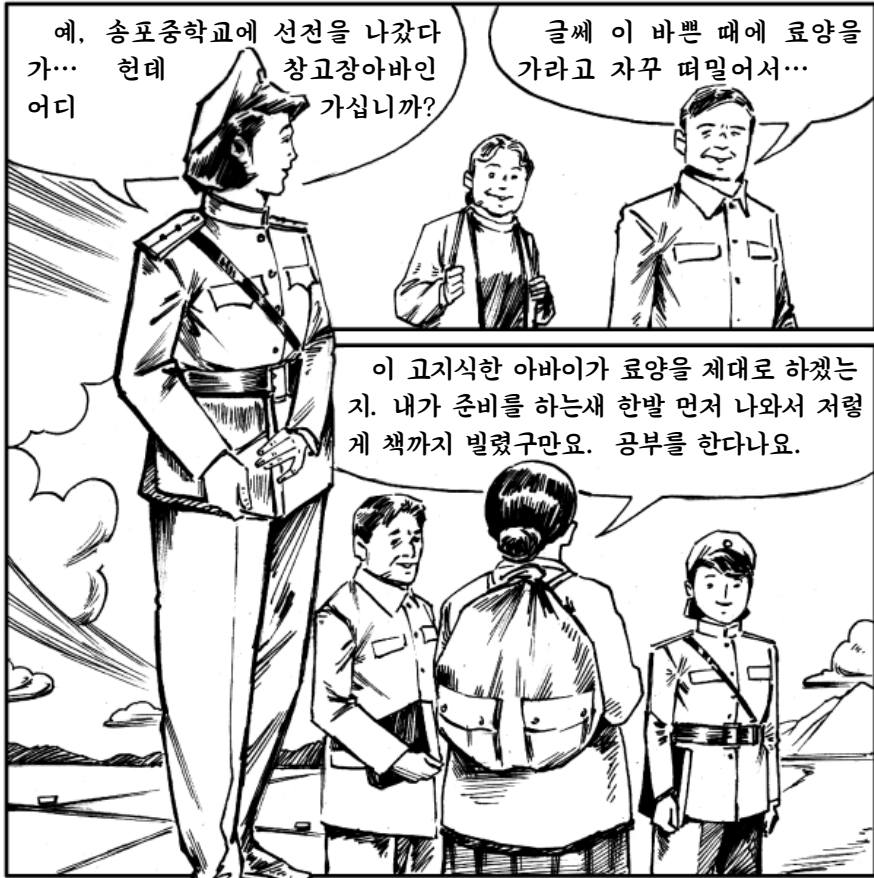
혹시 헌로동화를 신었다가 운동화로 바꾸어 신고 해뜰무렵처럼 조용한 때 외딴 배수구에서 별짓도 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수도 있소.
허나 다른 경우 그의 운동화를 몰래 리용한 놈이 있다고 생각해보오.
정금동무,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소.
의심보다는 믿음을 더 앞세우면서.

어느 한 진료소에 있다가 한해전에 이곳에 온 현미화의사는 의술도 높지만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주어 공장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었다.

호정동무, 힘들지?

진호정

괜찮아요.

참, 오후 6시에 공장적인 이야기모임이 있으니 소독을 끝내고 곧 갈 준비를 하자요.
이야기모임?! 그럼 빨리 준비를 해야겠네.
부글 부글
송포중학교

자, 그럼 수상한 사람이나 행동, 물건을 보면 제때에 신고하세요.
예
이야기모임에 가시는 길인가요?

예, 송포중학교에 선전을 나갔다가… 헌데 창고장아바인 어디 가십니까?
글쎄 이 바쁜 때에 료양을 가라고 자꾸 떠밀어서…
이 고지식한 아바이가 료양을 제대로 하겠는지. 내가 준비를 하는새 한발 먼저 나와서 저렇게 책까지 빌렸구만요. 공부를 한다나요.
허허…
료양도 하구 공부도 하시면 좋지요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온 공장에 알려져있는 창고장아바이가 설마 그런 사람일가?

영화관

짜락

이야기모임
«승리자들은
말한다.»

짜락

짜락

짜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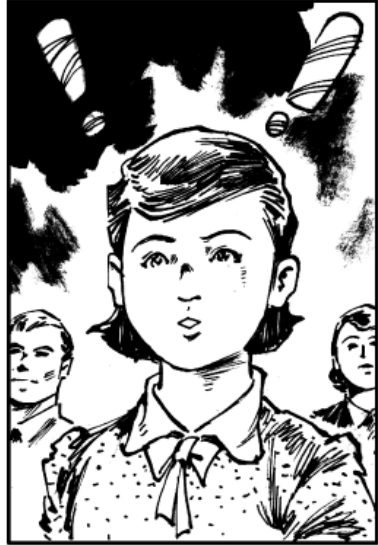
영화관

다음은 금속연구소
연구사 박영식동무가
출연하겠습니다.

짜락 짜락

저는 오늘 이자리를 빌어 가렬한 전투마당에서 피흘리며
쓰러진 저에게 자기의 피를 넣어주어 꺼져가던 이 생명을
살려준 고마운 한 간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여름 우리 부대는 약대봉돌출부를 사수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적들의 다섯번째 반격도 물리쳤습니다. 허나 그때에는 고지에 분대장동지, 세포위원장동지, 저 이렇게 세사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임무수행시간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땅크수류탄을 쥔채 기여오는 적땅크를 향해 육박하였습니다.

그날 적땅크를 까부시고 의식을 잃은 저는 전방에서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여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로영군의동지는 저를 구원한 동무가 진호정간호장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후 저는 건강을 회복하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은정으로 전쟁의 포화속에서 대학에 가게 되였습니다. 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인 진호정동무를 지금까지 그냥 애타게 찾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동무가 전화의 그날처럼 오늘도 당과 수령을 위해 모든걸 다 바쳐 일하고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피로써 지킨 조국을 위해 전우의 붉은 피가 흐르는 이 한몸을 깡그리 다 바치겠습니다.

흑
흑
호정동무, 왜 그래요?
제… 제가 그때 수혈한 동무예요. 흑!

아니, 그럼. 동무들, 여기에 그 진호정간호장이 있습니다. 흑-
진호정?!

정말 소설같은 이야기구만.
50년대 견우직녀의 상봉이지.

언니, 같이 가자요.

아니, 저게 뭐야?
불이다!
우리 연구소 쪽이다.-
아니, 도서실에 불이?

이게 무슨 일이람.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흑흑 …

빨리 불부터 꺼야지 뭘해?

다음날
영옥동무, 화재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오?
저… 도서실전기선이 불비해서 처마밑으로 지나간 전기줄에서 이따금 시퍼런 불이 펑긋거리군 했습니다.

그럼 송배전소
에 고쳐달라고 제
기했어야지요?
저… 두번이나
제기하긴
했댔는데 …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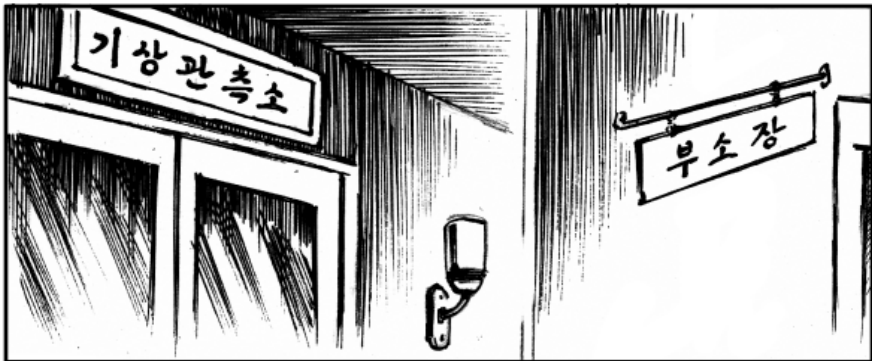
사무실
현장조사에
서 더 찾은것이
있소?

없습니다. 저 … 제 생각엔
전기선이 불비한데 이번 화재
원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
정금동무, 나와 함께 갔다올데가 있소.

기상관측소
부소장

방금 부소장동무가 말한것처럼 화재가 일어난 어제밤 6시 30분에는 최근 날씨중 바람이 제일 약했소. 우리가 바람이 안분다고 느낄만큼 말이요.

그럼 화재의
원인은?
현장에 다시
나가보기요.
카바이드등잔?

정금동무!
예
아
음...
아니, 현기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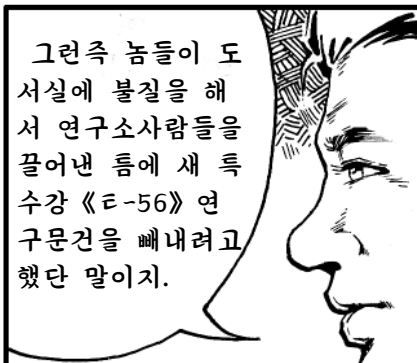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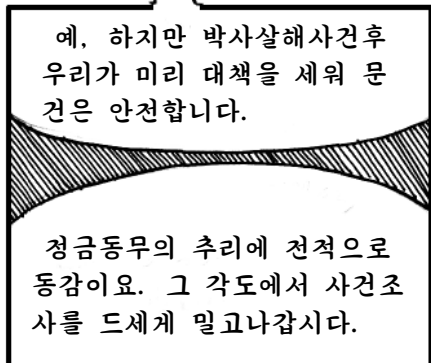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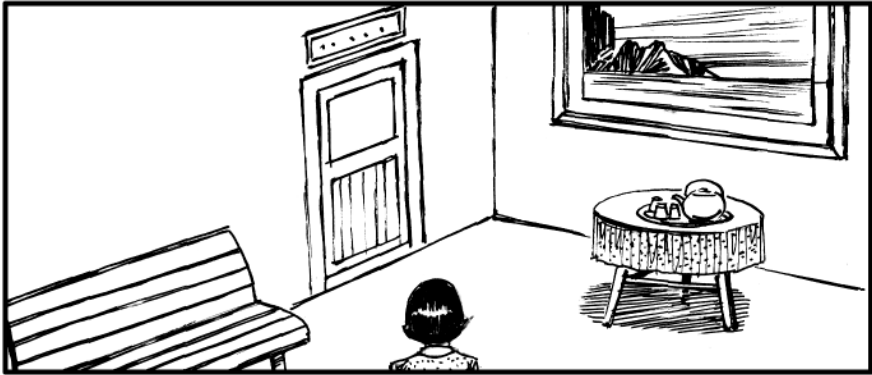
탁현기는 전쟁시기 입은 치명상의 후유증이 이제는 고치기 힘든 고질병으로 되였다.

화학전문학교선
생님들의 말을 들
어보아도 이 화재
는 의도적인 방화
이다. 도서실 사서
도 모르는 이것이
어떻게 거기에
있었을가?

다음날
현기동지, 때지 않은 굴뚝에선 연기가 날수 없습니다.
그렇다? 어디 들어보기요.
도서실화재는 의도적인 방화입니다. 그 근거는 첫째로, 사건이 일어난 그제저녁 바람이 제일 약했다는 기상관측소의 자료입니다.
둘째로, 전기선에서 불이 펑긋거린건 처마밑인데 처음 불꽃이 일어난 곳은 도서실 밑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을 끄러나갔댔기때문에 잘 알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카바이드등잔이 말없는 증인입니다. 밑판은 바가지처럼 눌려있고 중심에는 바늘구멍이 있는데 도서실동무들도 이 등잔을 전혀 모르고있는 것입니다.

이 카바이드등잔 밀통은 자연발화장치의 증거물이 틀림없습니다.
수고했소. 정금동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좋소. 자료를 종합해볼 때 놈들의 의도적인 방화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오?
저는 놈들의 더러운 유인기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실 맞은편에는 바로 금속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즉 놈들이 도서실에 불질을 해서 연구소사람들을 끌어낸 틈에 새 특수강《ㅌ-56》연구문건을 빼내려고 했단 말이지.
예, 하지만 박사살해사건후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워 문건은 안전합니다.
정금동무의 추리에 전적으로 동감이요. 그 각도에서 사건조사를 드세게 밀고나갑시다.

정금동무가 옳은 관점과 립장에서 반탐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모습을 보니 동무 오빠생각이 나누만.

공장에서는 전투로 들끓는 현장의 분위기에 맞게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하기로 하고 군중의 사랑을 받고있는 현미화의사와 진호정간호원을 선발하였다.

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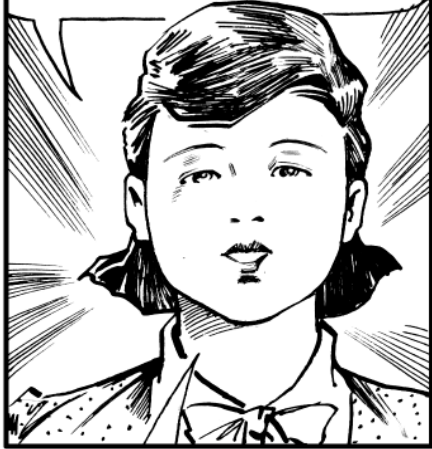
아이, 깜짝이야. 무슨 기분좋은 일이 있는게구나.

언니두 참, 언니가 오빠와 가까이에서 일하게 된것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다구?

넌 그저 만나
기만 하면 그
이야기구나.
우리 공장 찌끌새의 얼굴이
트면 안되지. 상점에 새 크림
이 나왔길래 샀어.
고마와요.
언니.
크림

사무실

언제부터 영옥동무를
만나자고 했어요.

저두 이번 사고를 놓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창고장아바이하고 어느 공장기사라는 사람, 이렇게 두사람이 왔댔습니다.
정확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확합니다. 대출책까지 다 타버렸지만 틀림없습니다.
창고장아바인 무슨 책을 빌렸어요?
밤과 담배가 유명한 고장을 찾는다면서 지리상식책을 빌렸어요. 그리고 손님은 신문자료만 보았어요.

나이 많은 창고장이 오지 않던 도서실에 화재가 나기 직전에 왔다간 것을 과연 스쳐 보낼수 있단 말인가?
땜수리

저, 이 카바 이드등잔을 살릴수 없을가요?
가만, 이게 낯이 익다.
이렇게 불맞아 다 삭은걸 뭣때문에 들고다니시우?
누가 때갔던 적이 있나요?
그래, 량순모가 출담배군 때간거구만.

정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한군데는
누가 후에 땐것 같은데
영 서툴구만. 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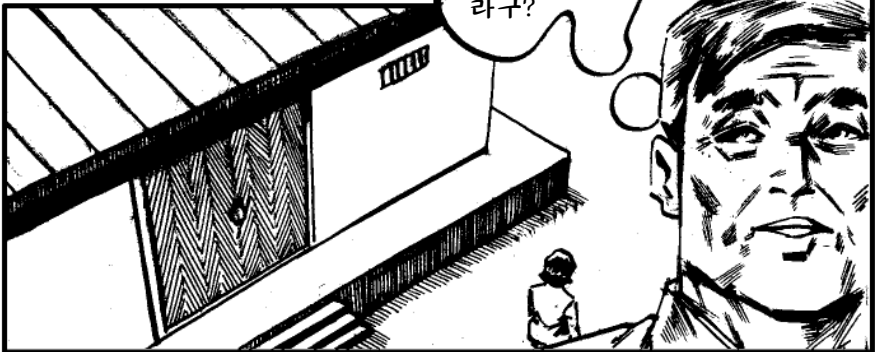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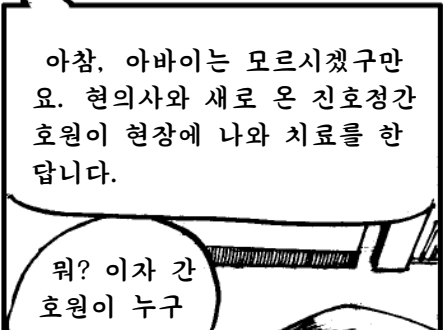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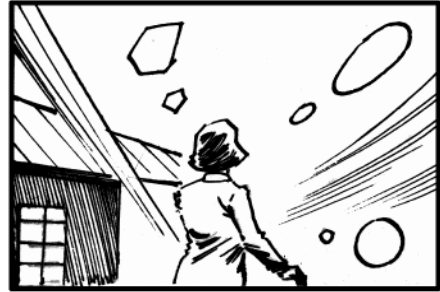
성공을 앞둔 특수강연구를 놓고 놈들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지는데 나혼자서 이 일을 꽤 해낼수 있을가? 현기동지라도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내가 무슨 나약한 생각을.
나도 이 나라의 당당한 내무원이다. 이 한몸 다 바쳐 조국과 인민, 공장의 안전을 지켜가리라.

다음날
내무원처녀, 마침이구만. 잠간 우리 집에 좀 들렸다 가라구.
아, 책임자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예요?
음, 들어가보면 알게 돼.

이걸 보라구. 파철을 주으러 다니던 우리 막내가 이걸 어느 건설장에서 얻었다질 않나. 내가만 보니 해방전 고병관놈이 늘 손에 거머쥐고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그 박달나무망치가 아니겠나.
서기룡은 원래 송포강철공장주였다. 감독 고병관놈은 매부인 서기룡을 믿고 《고병관》이라는 이름까지 새겨져있는 이 박달나무망치를 내흔들며 로동자들의 피땀을 가혹하게 짜냈다.
고병관놈은 해방이 되자 가족을 먼저 서울로 빼돌리고 뒤처리를 한답시고 남았다가 덜미가 잡혀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고병관

아주머니, 정말 중요한걸 얻으셨어요. 언제봐도 경각성이 높으시다니까요.
이 박달나무 망치를 보니 마치도 서기룡, 고병관 그 원쑤놈들이 곁에 있는것만 같애.
그런 말 말라구. 응당 해야 할 일인걸…
아주머니, 고마와요.

공장창고
일찍 나
왔구만.
아바이, 언제 오셨어요?
어제밤에 왔네.
그간 수고했구만.
수고야 뭐.
몸이 펵 축
갔구만요.

아바이, 제 인차 현장의료봉사대에 가서 약을 좀 타가지고 오겠습니다.
현장의료봉사대라는건?
아참, 아바이는 모르시겠구만요. 현의사와 새로 온 진호정간호원이 현장에 나와 치료를 한답니다.
뭐? 이자 간호원이 누구라구?

진호정! 아바이가 료양가는 날 있은 이야기모임에서 박영식기사와 진호정간호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상봉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뭐라구, 자세히 말해보라구.
전쟁시기 박영식기사동지네 부대가 돌출부를 사수할 임무를 받았답니다. … …
아바이, 그럼 제 인차 갔다오겠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라구야.
그럼 그때 피투성이가 되여 온몸에 붕대를 감았던 사람이 박기사란 말이지.
진호정, 약대봉… 그렇게 안타깝게 찾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단 말이지.

아바이!

진호정간호원이 아바이가 료양가 계시느라고 예방주사를 맞지 못했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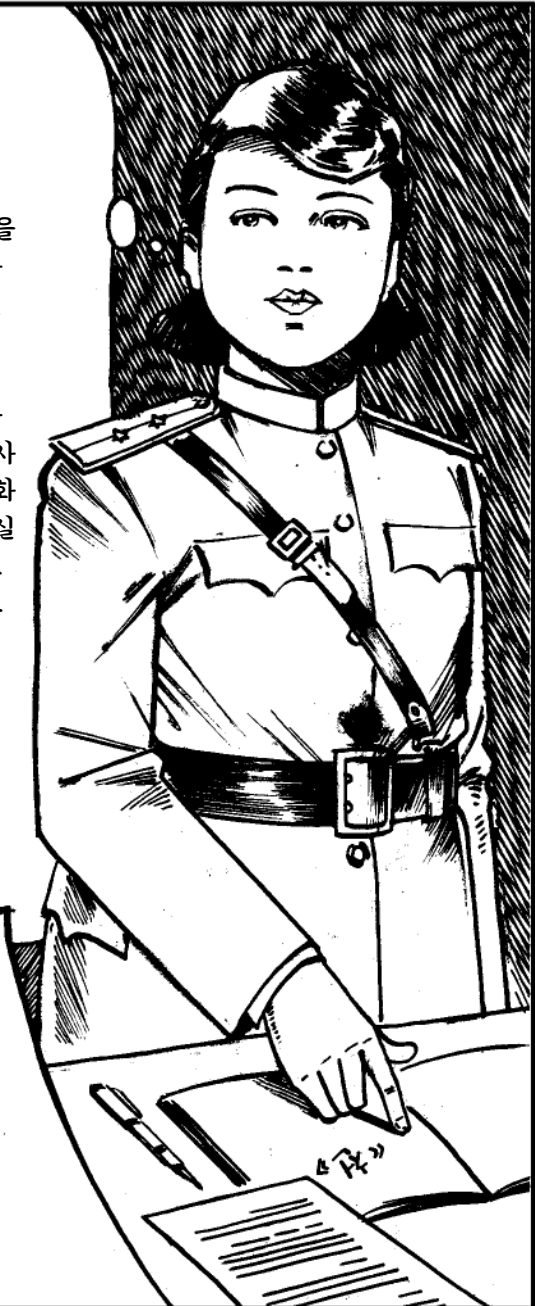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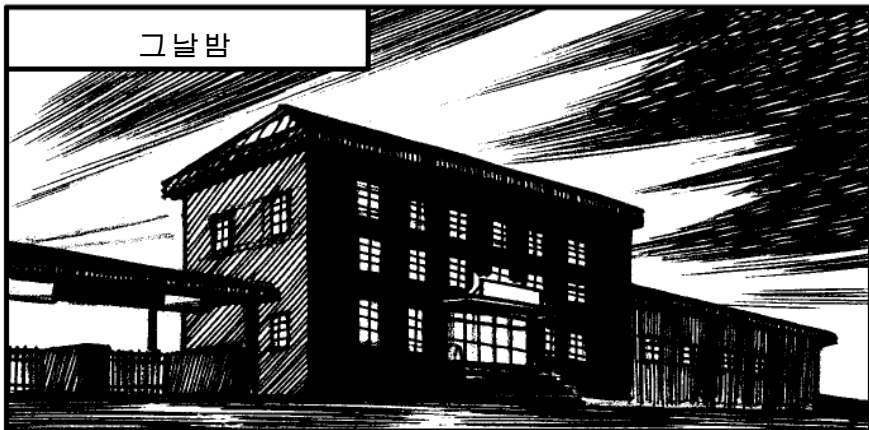
예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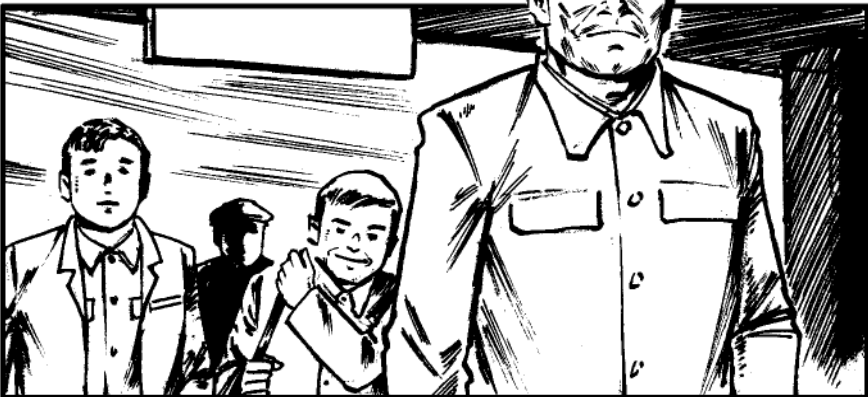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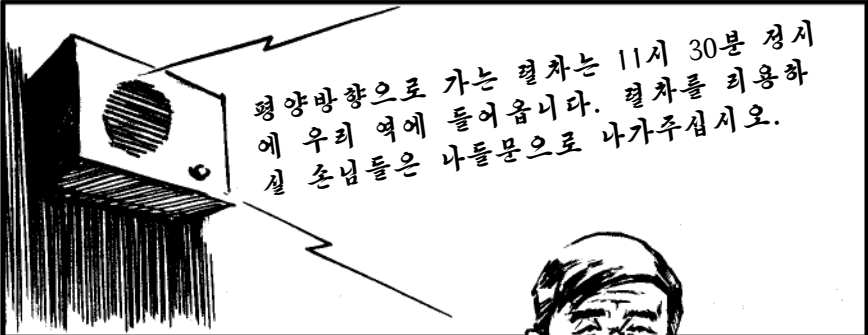
이거 정말 고맙수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름이 진호정 이라지?
예.
거 참 모를 일이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의 이름을 가진 처녀가 동시에 수혈을?
아직은 정확히 알아보고 말해야지.

사무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을 료해한 자료들이 이상하게 량순모창고장과 련결된다. 박사살인현장에서의 신발흔적이며 화재현장에 있은 카바이드등잔이 그가 때간것이라는 사실이며 더우기는 그가 화재가 나기 직전에 도서실에 간것 등… 그런데 오늘밤엔 사람을 찾겠다고 또 급히 려행을 떠났어. 그가 누굴가? 실머리는 아바이에게 있다.
《천》

그날밤

오늘부터 담배왕의
시중을 끝까지
들라.
《백호》

음

역전기다림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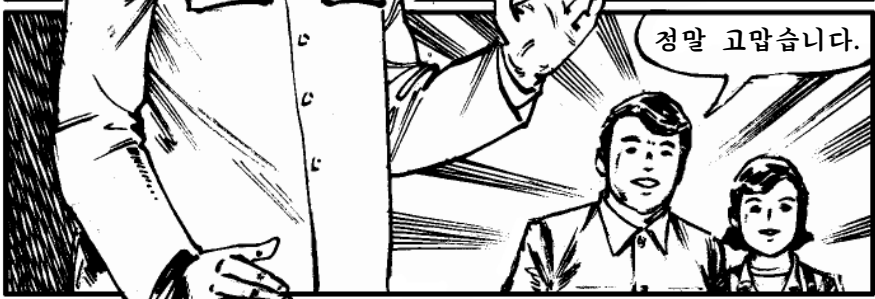
평양방향으로 가는 렬차는 11시 30분 정시
에 우리 역에 들어옵니다. 렬차를 리용하
실 손님들은 나들문으로 나가주십시오.

창고장은 두번째로 순천과 성천군의 모든 마을을 다 훑었지만 그가 찾는 간호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공장사람들속에서 호정동무보고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고운 처녀라고 칭찬이 대단하더구만.

어마나, 그런 말을 다… 그럼 동무는요?

허허, 생명의 은인에 대한 칭찬이니 난 좋더구만.

아이구, 견우직녀가 함께 출근하누만. 헌데 영식기사가 몹시 축갔구만.

박기사를 위한 일이자 공장을 위한 일이 아니요.
고마와요. 아바이.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재과장동지, 이번에 창고장아바이가 여러날 자리를 비운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누가 뭐래도 아바이를 믿수다.
좋은 말을 해주어 고마와요.

창고장의 사사려행을 깊이 알아봐도 그는 특수강을 노리는 적일수 없다. 이것은 분명 모든 혐의를 아바이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놈들의 모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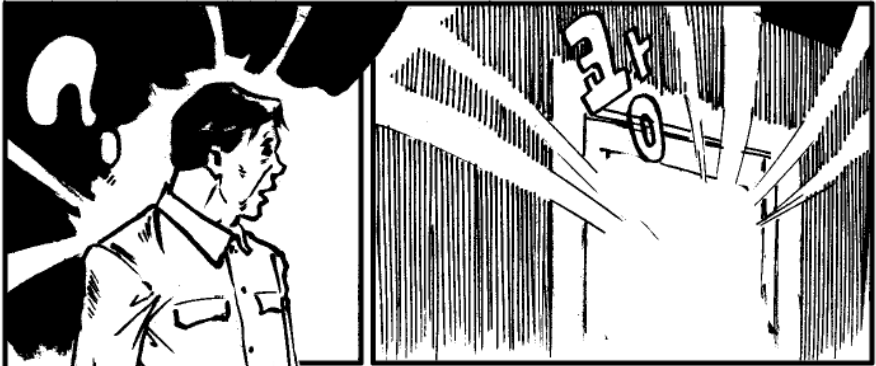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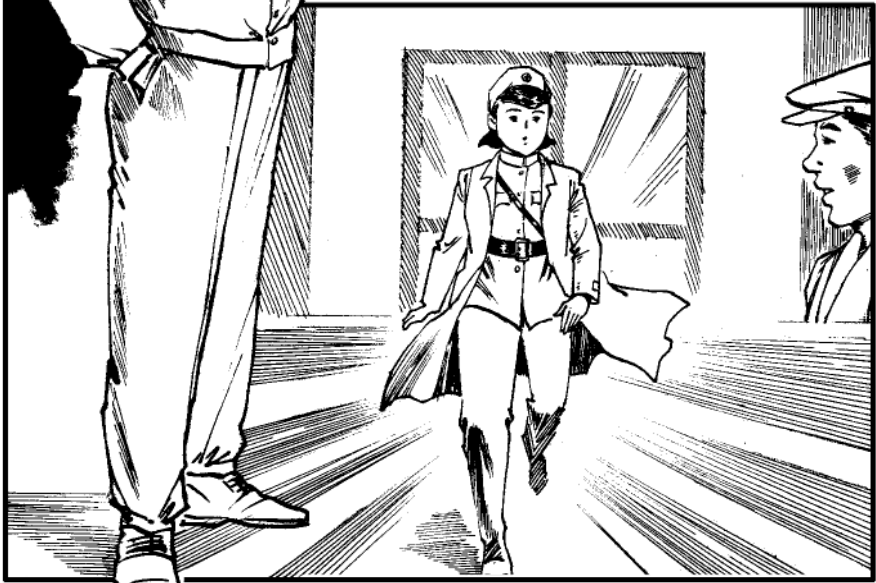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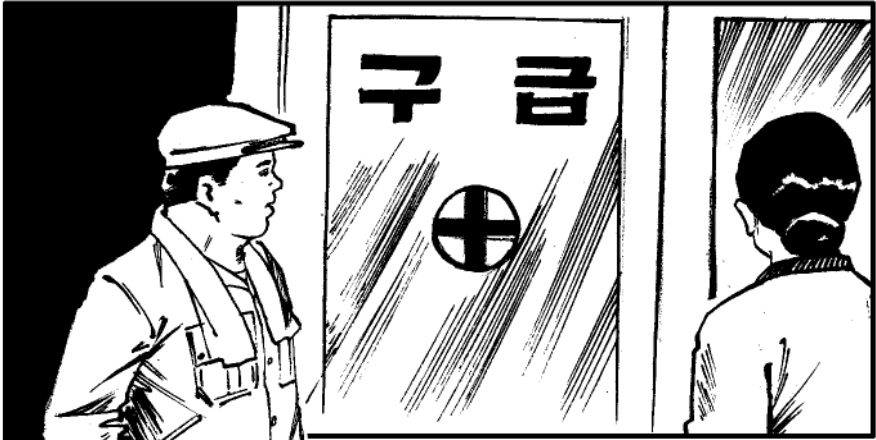
담배불 위험.
속히 꺼버릴것.
《백호》
흥!
계십니까?
두만부원동지가
우리 집엘 어떻게?…
지나가던
길에…

이건 옷감인데 의사선생의 마음에 들겠는지…
에두를게 없지요. 선생두 혼자구 나도 홀몸이우다.
무슨 말씀인지?

선생, 내 진정을 거절하지 마시오.

의사선생님, 계시오? 우리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이렇게 왔수다.
똑 똑
알았어요. 이제 곧 가겠어요.

빨간장미라… 장미
를 꺾으려면 가시에
찔려야 한다고 했지.
그래, 꿩도
먹구 알도 먹구.

며칠후
큰일났습니다. 창고장 아바이가 어떤 놈의 칼에 찔려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뭐라구요
지금 군병원에 있답니다.

구급
이걸 어쩌면 좋수. 박기사의 영양에 개엿이 좋다는 소릴 했더니 아바이가 그걸 가지려 강남리에 갔다가 그만 저렇게 됐수다.

마침 성민운전사가 지나가다가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큰일날번 했어요.
어디 있어요?
구급실에 들어갔수다.
가슴과 잔등에 칼을 맞아 출혈이 심하고 머리에 심한 타박을 받아 현재는 소생 하기가 매우 곤난합니다.

과장선생님, 어떻게 하나 아바이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급
성민동무, 아바이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제가 ××공장에 갔다오는 길에 대청산 마지막 굽인돌이를 도는데 웬 수상한 놈이 강냉이발속으로 도망치듯 내빼는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서라!
와슬랑 —

갱
캐갱

개도적이였구나.

아니?
음

단순히 개 한마리를 훔치려고 칼부림을 했겠는가? 왜 창고장을 죽이려고 했을가?

급

사무실
창고장의 사사려행목적을 아는 놈이 칼부림을 했을것이다.
땡 땡 ...
창고장이 개를 사려 강남리로 간다는것을 안 사람은 민봉순아주머니와 지두만부원을 비롯한 몇몇 합숙생들이라고 한다. 가만, 땜기술을 배우겠다고 돌아다니던 정미소집 조카 최성민! 그가 수상해.

그날밤
야, 최성민, 창고장을 해치우는건 식은죽먹기라고 하더니 이젠 목건사하기도 싫은게지.
청룡
독수리

형님, 왜 이러시우?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질 않소.

《백호》가 그따위 소리를 들어주겠대? 내 네놈을 당장 죽여치우겠다.

제발 한번만 봐주시오. 옛 세상을 함께 찾자더니…
잔말 말구 단도나 내놔.
저…

잘못 가지구 놀다가 걸릴것 같아서 아예 강물에 던져버렸수다. 아마 귀신도 못찾을거우다.

뭐야？그게 정말이야？

네가 죽지 못해 환장을 했구나. 머저리！

사실 창고장을 타고앉아 칼부림을 할 때 창고장이 《독수리》의 눈에 모래를 쥐여뿌리는 통에 놈은 칼을 떨구고 차소리에 놀라 그냥 도망쳐버렸던것이다.

사무실

창고장아바이는 진호정간호원을 보고 이상하단 소리를 련속 외우다가 그날로 시간을 받고 려행을 떠났습니다.

제1부 끝